

IESNA 參加報告

1999 IESNA Annual Conference 참가일기

김 훈 <강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홍범 <국립중앙박물관 관장·국립한기획단 설비과장>

“이 원고는 저자들이 1999년도 IESNA Conference에 참가한 기록을 김 훈 교수의 입장에서 일기체로 서술한 것입니다.”



색 모델에 관한 논문을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자 또 귀찮게 군다. 모델의 예측결과는 매우 좋았지만, 관련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후속 연구과제를 여러 곳에 신청했던 것이 모두 실패하였고, 실험이 끝나고 논문 발표한 것이 작년 말이라 이제는 내용도 가물가물한데... 참으로 집요하다. 대답을 안하고 버티다가 쳐다보는 눈초리에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한번 해보자고 말해버리고 말았다.

오늘 LD+A를 뒤져보니 8월 호에 IESNA Conference 원고모집 광고가 나와 있다. 12월 4일까지 250단어 이내의 Abstract를 IESNA와 논문위원회 위원장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Mystrick교수에게 보내면 되도록 되어 있다. 학회지에 논문 발표할 때에 이미 영문으로 작성한 초록이 있으니 그걸로 대신하면 되겠지. 우선은 다른 급한 일들을 하자...

1. 한국

<1998년 10월 어느 날>

어제 학회 평의원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 기획단의 김홍범 설비과장을 만났다. 이미 박물관의 조명환경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되었던 채색시료의 변퇴

<1998년 12월 1일>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다가 손해를 보았다. 12월 4일까지 발표할 논문의 Abstract가 미국에 도착해야 하는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루기도 하였지만, 전혀 챙기지 않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다. 팩스나 이메일로는 접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예 이러한 접수 방법에 대해서

는 나와있지 않았다.

우체국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국제 특급우편이라는 것이 있는 데, 나흘 안에 미국에 도착한다고 한다. 부랴부랴 전에 써놓았던 Abstract를 대충 손보고 프린트해서 우체국에 들고 가서 부쳤다. 미국은 우리보다 하루 늦으니까 기한 내에 들어가겠지. 우편요금만 30,000원이 들었다.

〈1999년 1월 10일〉

IESNA에서 편지가 왔다. 내가 보낸 Abstract가 접수되었고, 논문 번호 #20이 할당되었으며, 이 번호를 향후의 모든 과정에서 계속 사용한다는 내용이 첫머리이다. 그리고 논문을 작성해서 25부를 2월 19일까지 보내달라고 한다. 각 논문에는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과 같이 저자를 알아 볼 수 있는 표현이 명기되어서는 안되고 주어진 논문 번호만을 기입하며, 맨 앞의 별도 표지 한 장에 저자 이름을 따로 기입하라는 요구이다. 이는 논문위원회가 무기명 논문심사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만사가 귀찮게 느껴진다. 조명디자이너나 교재를 만드는 일도 산더미 같은데 이걸 해야하나... 그냥 포기해 버릴까 하는 유혹이 생긴다. 어쨌거나 김 홍범 박사에게 연락을 했다. 아연 반색을 하면서 좋아서 난리다. 참 이상한 분이다. 일을 분담해서 서론과 결론 부분은 김 박사가, 이론과 실험 부분은 내가 번역하기로 했다. 한달 여의 기간이 있으니 좀 여유가 있다 싶기도 하다.

〈1999년 2월 12일〉

우여곡절 끝에 겨우 논문을 보냈다. 저번에 발표했던 논문을 마구잡이로 대강 번역하고, 그 뒤에 새로 확립하여 정리된 논리의 발전 과정을 추가해서, 두 사람이 번역한 내용을 서로 맞추고... 이 작업을 사흘만에 후닥닥 해치우곤 스물 다섯 부를 복사해서 보내려니 어쩐지 쾅긴다. 잘하는 것인지?

시간에 맞추기 위해 특급우편으로 보내느라고 또

45,000원이 들었다. 김 홍범 박사에게 반씩 내자고 말할까?

〈1999년 3월 10일〉

논문이 접수되었고, 논문위원회에 배포되었으며, 4월 첫 주에 논문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장의 연락이 있을 것이라는 편지가 IESNA에서 왔다.

〈1999년 5월 10일〉

우편함에 IESNA 논문위원장에게서 온 두툼한 편지가 있다. 급한 마음을 참고 우선 다른 편지들을 하나하나 개봉해서 읽은 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열었다. 편지의 서두에 Congratulations! 라는 단어가 눈에 띄이는 걸 보니 통과가 된 모양이다. 입가에 저절로 떠오르는 웃음을 감출 길이 없어서 앗! 하고 고향을 한번 질렀다. 그러나 편지를 읽어가면서 점차 웃음이 사라졌다. 엄청나게 고생해서 이해한 복잡한 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지에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 첨부되어 있다. 우선 첨부된 검토 의견들을 참조하여 논문 내용을 수정해서 6월 4일까지 IESNA와 논문위원장에게 각각 보내라. 한 부는 수정한 부분을 표시해서 좌장에게 보내라. 수정논문은 인쇄비용 등을 감안해서 가능한 많이 축약하기 바란다. Abstract를 250단어 이내로 다시 정리해서 IESNA 본부에 디스크나 이 베일로 보내라.

수정한 논문을 내면 토론자들이 이를 검토해서 토론 의견을 내고, 이는 Proceeding에 같이 실린다. 수정된 논문과 토론에 대해서는 논문위원회가 Conference 끝난 후에 검토해서 Journal에 게재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Journal에 게재되려면 수준이 높아야 하니 잘 고쳐라. 발표는 8월 9일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Robert Davis를 좌장으로 해서 응원I 분과에서 논문 33번과 같이 발표한다. 슬라이드나 OHP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에서 만나자... 가만!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무려 90분이잖아! 그

긴 시간동안 겨우 논문 두 편을 발표한다고?

논문심사의 주요 내용은 우리 학회의 논문심사 양식과 유사했다. 논문의 독창성이나 기존 연구와의 관계, 기술적이나 수학적 정확성, 서술의 수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주어진 형식에 기입한 것으로 두 사람이 검토한 내용이 각각 붙어 있다. 전반적으로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영어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두 사람이 공통으로 하고 있다. 휴! 앞이 막막하다. 기껏 써 놓은 영문을 고치는 것도 능력이 미칠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지적 사항에 45분의 발표라니...

우선 편지 내용을 김 홍범 박사에게 팩스로 보낸 뒤 전화로 의논을 했다. 영문 부분은 주위에 영어를 전공으로 하는 분들에게 검토를 부탁하고, 우리는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답변을 만들고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일부는 본문 중에 삽입하기로 했다.

좌장인 Robert Davis의 주소가 편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를 알아내려고 University of Colorado의 Web Site에 접속했다. Web이 대단히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한참 고생했고, 결국 찾아낸 내용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이름만 덜렁 나와있고, 연구 경력이나 실험실 소개도 없다. 주소는 대충 알아냈지만, 이 사람이 맞는지 조차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1999년 5월 31일〉

서둘러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하고 부탁을 해서 영문의 문법적인 검토를 받고-사실 별로 고쳐준 것은 없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되, 조명을 전공으로 한 사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첨가 부분과 수정부분을 검토하고 고치고... 그러다 보니 날짜가 후딱 지나가 버린다. 온갖 신경을 다 써서 고친 내용을 오늘 또 특급 우편으로 보냈다. 논문 위원장, IESNA, 좌장에게 각각 보내느라고 비용이 수월찮게 들어간다.

오후에는 학교에 국외학술발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냈다. 올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다.

〈1999년 6월 3일〉

IESNA에 논문 Abstract를 이 메일로 보냈다. 잘 받았다는 답장 메일이 저녁때 왔다.

〈1999년 6월 11일〉

IESNA에서 Conference 안내 팸플렛이 왔다. 발표될 논문 제목이나 저자는 상세히 표시하지 않고 논문 분야만이 표시되어 있으며, 대강의 일정과 함께 대회 등록 양식 및 호텔 예약에 관한 정보만이 수록되어 있다. IESNA에서 주관하는 또 다른 행사인 Lightfair 보다는 등록이나 예약이 매우 불편하다.

IESNA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Conference 일정은 자세히 나와있으나 대회 등록을 온 라인으로 하는 기능은 갖추어놓고 있지 않다.

〈1999년 6월 30일〉

New Orleans의 Sheraton Hotel에 예약을 마쳤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할인 사이트에서 예약했더니 1박에 109불이다. 호텔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가격은 200~300불에 이르고, IESNA 팸플렛에 나와있는 단체 할인 가격이 119불인데 그보다 싸다. 8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에 세금 포함 630불을 신용카드로 지불했다. 특급호텔 치고는 너무싼 가격이라,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이 생긴다.

〈1999년 7월 2일〉

Philips사의 Sam Carleton이란 사람에게서 이 메일이 왔다. Robert Davis가 사정으로 좌장을 맡을 수 없게 되어 자신이 좌장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발표 시간을 엄수할 예정이며, 적절한 관련 연구자들에게 토론을 부탁할 예정이니 우리의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이 가능한, 저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한다. 또한 발표 전에 저자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약력을 보내달라는 내용도 있다.

김 홍범 박사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추천을 하자고 난리를 친다. 귀찮다. 말인 즉 좋은데 또 영어 편지를 쓰라는 것 아닌가! 남의 심정도 모르고...

〈1999년 7월 7일〉

대회등록을 7월 9일까지 미리 신청하면 약 20불 정도를 깎아준다. 오늘 등록 양식을 팩스로 보냈다. 사흘 일정의 대회에 하루 참가비는 150불, 일요일에 열리는 워크숍의 참가비는 100불, 논문집은 별도로 또 150불이다. 정말 비싸다.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가 학술적 난이도까지 표시되어 참여자의 지식 수준에 따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명에 대해 지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될 듯하다. 우리 학회에서도 이러한 워크숍을 연례적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계속 항공편을 알아보았는데, 성수기라서 엄청나게 비싼데다가 자리도 없다고 한다. 외국 항공사는 두 번 갈아타고 125만원 정도, 대한항공은 한번 갈아타고 169만원 정도이다. 외국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비행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갈아타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아 대한항공으로 정했다. 여행사에서 값은 비싸지만 마일리지 혜택 등을 생각하면 손해가 아니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감빡 넘어갔다. 그렇지만 너무 비싸다. 지난 96년도에 집사람과 1주일 동안 미국 서부 여행을 한 전체 경비보다 많은 돈이 항공료로 나가는 것이다.

〈1999년 7월 27일〉

Sam Carleton에게서 이 '메일이 왔다. Robert Feller가 자신의 토론 의견을 편지로 따로 보내겠지만, 이 메일로 우선 내용을 보낸다는 것이다. Feller라면 박물관 전시조명의 보존과 광화학 현상에 의한 변퇴색 분야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그의 부인인 Johnston-Feller도 역시 이 분야에 연구

업적이 많다.

역시 권위자답게 우리가 만든 모델과 실험결과를 세밀히 분석하고 의문점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만든 손상계수의 그래프는 별로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값을 세밀하게 읽어서 로그 그래프로 변환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등골이 서늘할 지경이다. 또한 우리가 미처 읽어보지 못한 참고 문헌을 추천하며, 이 논문들을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한다.

발표용의 OHP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만저만 신경 쓰이질 않는다. 김 홍범 박사와 의논하여 발표용 자료는 내가, 박물관 조명에 관련된 토론 의견에 대한 답변은 김 박사가 만들고, 검토 후 확정하기로 했다.

〈1999년 7월 28일〉

여행사에서 항공요금 견적을 팩스로 받아서 학교 연구지원실에 보냈다. 항공요금의 65%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지원금은 100만원 남짓 되는데, 등록비용과 호텔비 등을 생각하면 2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써야 할 것 같다. 나는 학교의 지원이라도 받지만, 김 홍범 박사는 휴가를 내고 자비로 가는데 이만한 열성을 가진 분이 또 있을까 싶다.

후속 연구를 여러 곳에 신청했지만 모두 실패한 것이 또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는 곳은 과학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인데 이 재단들의 학문분류 표에는 조명이나 전기설비라는 분야가 아예 없다. 전체 회원 수 2,000명을 넘는 학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적절한 심사위원의 배정을 받기 어려운 관계로 연구비를 신청하는 것이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근래에는 에너지 절약이나 상품개발과 관련된 연구에 그나마 약간의 지원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보다 원론적이고 학술적인 주제에 지원을 받아 신나게 연구할 수 있는 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1999년 7월 29일〉

미국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의 Frank Florentine에게서 이 메일이 왔다. 그는 IESNA의 박물관 및 미술관 조명분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역시 우리의 논문에 대한 토론의견이다. 이분은 조명설계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델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 그다지 어려운 질문은 아니다.

OHP 문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떤 형식으로 만들지 고민 끝에 각 페이지마다 주제를 제시하고 관련된 작은 항목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로 했다. 작성은 파워포인트로...

〈1999년 7월 31일〉

IESNA 동중부지역 부지부장인 Edwin Robinson의 토론의견을 Sam Carleton이 보내왔다. 토론의견은 우리가 제안한 모델이 매우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 6월 30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박물관조명 설계기준에 대한 CIE TC3.22 회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제안한 모델이 실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 애초 우리의 모델은 빛에 대단히 민감한 전시물에 대한 것이고, 고미술 계통의 회화류와 같은 전시물은 하나의 작품에 그다지 많은 색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한 안료나 염료에 대해 적용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현재 세계의 여러 학회나 국제박물관 협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장조도기준의 근간이 되는 전시물의 내광성 평가와 적산조도기준의 한계도 정확히 표현해야 할 것 같다. 논문 발표시 보충해야 할 내용이다.

자꾸 토론의견들이 날아오니 걱정이 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두로 설명하는 것인지? 45분 동안의 발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쓰기 싫은 영문 메일을 억지로-가능한 간단하게- 써서 좌장에게 보냈다.

〈1999년 8월 2일〉

학교의 지원금이 확정되었다는 공문이 왔다.

Sam Carleton에게서 발표 진행에 대한 답변이 왔다. 저자의 소개, 30분간의 발표, 검토의견 발표(5분),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5분), 청중의 질의와 답변(5분) 순서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별도의 유인물은 필요 없다고 한다.

〈1999년 8월 4일〉

조명학회에 간 김에 여행사 직원을 만나 항공권을 구입했다. 7일 오전에 서울을 출발해서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뉴올리언스 도착, 귀국은 시카고 경유이다.

저녁시간에는 김 홍범 박사를 만나서 발표 자료와 토론의견에 대한 답변에 대해 협의하였다. 김 박사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답변을 참고문헌까지 달아서 준비해 왔다. 준비에 신경을 쓰다보니 소화불량에 걸렸다고 투덜댄다.

답변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숨아내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많았다. 나는 모델의 이론 및 실험 위주의 설명을, 김 박사는 응용과 해석 위주 설명을 주장하였다. 조용한 커피숍에 손님이 우리 둘 뿐이라 마음놓고 큰 소리로 토론했다. 그러다가 문 닫는다고 비 오는 길거리로 쫓겨났다. 발표 자료는 확정하고, 답변 부분은 유인물이 필요 없으니 발표 전날까지 계속해서 고쳐나가기로 했다.

〈1999년 8월 5일〉

여행을 위해 짐을 쌌다. 처음에 같이 가기로 했다가, 비용 문제로 포기한 집사람은 어느 때 보다는 비협조적이다.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아서 일찍 잤다.

〈1999년 8월 6일〉

발표용 OHP를 인쇄했다. 사진과 복잡하고 세밀한 그래프가 많아서 이는 칼라 레이저프린터로 만들었다. 비용과 노력이 든 만큼 잘 보일지 걱정이다. 왜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실제 발표 연

습을 한번도 하지 못한 것이 걱정된다.

7일 오전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하므로, 저녁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다. 상계동의 부 모님 댁에 12시 도착.

II. 미국

〈1999년 8월 7일〉

오전 10시 반 비행기인데 요즘 워낙 출국자들이 많아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8시에 김포공항에서 김 박사를 만났다. 나는 발표 준비물에 책까지 짐이 한가득 인데 김 박사는 옆집에 가서 하루 자는 정도로 짐이 단출하다. 김 박사가 대한항공의 모닝캄 회원이라 생각보다 빨리 수속을 마치고 한참을 기다려 비행기를 탔다.

동경에서 한 시간 기착 후 다시 탄 비행기는 텅텅 비었다. 모두 두 자리씩 차지하고 간다. 점심은 비빔밥을 먹고.

비행기 안에서 Feller가 보내준 논문을 읽었다. 이 논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고민했던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 우리의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에서 필요한 몇 가지 가정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논문이었다. 그러나 수학적인 전개 방식은 놀랄 정도로 형편이 없어서 좀 자신이 생겼다.

LA에 도착해서 입국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은 뒤 뉴올리언스 행 비행기를 탔다. 또 식사를 준다. 스파게티와 닭고기에 소스를 끼얹은 괴로운 식사로 낡길 수밖에 없었다. 네 시간 가까운 비행 뒤에 드디어 뉴올리언스 도착. 공항 밖으로 나오니 열기가 혹 느껴진다. 가랑비 속에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서 체크인. "How many keys..."라고 묻는 것을 "How many kids..."로 알아듣고 한참 말뚱말뚱 했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것을 걱정한 부분은 불필요한 생각의 낭비였던 것 같다.

춘천에서 출발한지 38시간, 상계동에서 나와서는

28시간만에 호텔 방에 들어섰다. 퀸 사이즈 베드의 호텔 방은 미국 호텔치고는 놀랄 만큼 작다. 그러나 창 밖으로는 굽어지는 미시시피 강과 건물들이 잘 내다보인다. 호텔 수영장이 내려다보고 나서야 '수영복을 챙겨올 걸...'하는 생각이 났다. 그러나 출국하기 전에 몇 가지 보고서 작성 등의 워낙 바쁜 일정으로 시간을 보낸지라 수영복까지 챙겨오는 호사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직 해가 많이 남아서 호텔에서 지도를 얻어 프랜차이즈 쿠키 구경을 나섰다. 이 도시는 이전 프랑스 땅이었던 것을 미국으로 편입했으며, 덕분에 프랑스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건물은 오래된 낡은 것들로 그다지 아름답다거나 하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많은 관광객들과 가게들이 그런 대로 흥취를 돋군다. 붉은 색이 나는 생맥주를 한 잔씩 사서 들고 이리저리 구경을 다녔다. 관광객들이 가득 모인 곳에 가보니 부두고 신자들인 듯 의식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굿을 본다면 다 까무러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웃었다.

김 박사는 책방을 보더니 정신을 못 차리면서 당장 들어가 보겠다고 난리다. 결국은 책방 안에서 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은 간단히 햄버거 하나씩 먹고 샤워 후 취침.

〈1999년 8월 8일〉

세수를 하려고 찬물을 트니 잠시 찬물이 나오다가 곧 따뜻해진다. 이곳은 찬물도 데워서 주나보다. 아침은 이곳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카페 두몽드에서 베니에와 커피로 마쳤다. 베니에는 갓 구운 마름모꼴의 도넛 위에 분말 설탕을 듬뿍 뿌린 것인데 참으로 맛이 있다. 길 건너편에서는 흑인 아이들이 탭댄스를 추고 있다.

내일 오전에 발표이니 오늘은 발표 준비를 해야한다. 김 박사는 어제부터 지도에서 박물관과 미술관들을 열심히 찾더니 오늘은 그곳에 가보아야겠다고 나선다. 나는 호텔 방에 남아 발표 준비를 하고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 순발력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고, 이야기할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커닝 페이지에 써 넣었다. 시계를 보며 중얼중얼 발표 연습을 했다. 대략 시간이 맞는 것 같다. 며칠 전 TV에서 본 영어 강사가 배를 숙 들이밀고 영어를 하면 미국식 발음이 저절로 나온다고 했는데 나에게도 불가능한 요구인 것 같다.

점심을 먹으러 호텔을 나섰는데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맹렬하게 내리는 비가 순식간에 도로를 물바다로 만들고, 빗방울이 길바닥에 부딪히면서 사방으로 튀는 물보라가 대단했다. 비가 약간 잦아들기를 기다려, 뛰어서 식당엘 갔다. 굴을 신나게 까고 있는 카운터에 앉아서 바게뜨 빵에 소고기를 끼운 포보이(Po-Boy's)라는 음식을 먹었다.

김 박사는 뉴올리언스 미술관과 루이지애나 어린이 박물관을 돌아보고 왔다. 미술관에서는 드가의 특별전이 있었다고 했다. 네 시에 김 박사와 같이 Conference 등록 장소에 가서 명찰과 일정표, 발표논문의 초록 등을 받았다. 일정표에는 39편의 논문 발표, 15개의 초청 세미나, 2개의 워크숍, 56개의 위원회 일정과 장소 등이 나열되어 있다. 또한 10개국 644명의 참가자 명단과 132개 전시회 참가회사의 명단이 있다. 등록장소 옆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조명디자인 도면이 전시되어 있으며, 다른 쪽에는 서점이 열려있다.

방으로 돌아와 발표 의논을 했다. 어제 읽은 논문은 건성유나 수지와 같은 물감의 고착제에 색소가 분포된 시료의 변색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시험한 색종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이 문제를 김 박사에게 이야기했다가 의견이 충돌하는 바람에 한시간 넘게 토론했다.

저녁때에는 전화번호부에서 한국식당을 찾아내서 택시로 갔다. 간단히 김치찌개 정도나 먹으려 했으나 그렇게 해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알아서 해주겠다고 한다. 포도주와 함께 큰 도미를 통째로

튀겨낸 음식이 압권이고 특별히 끓여 내왔다는 김치찌개는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었다. 주인은 음대 출신이라고 하며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웨이터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음식값은 호되게 비싸고 한국음식 같지 않아서 다시 가고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라서, 이렇게 변화된 한식으로 주 메뉴를 삼은 것인가? 호텔로 돌아와 다시 연습을 하고 일찍 잤다.

〈1999년 8월 9일〉

오늘은 Conference가 시작되는 날이고 발표를 하는 날이다. 아침은 필립스사에서 뷔페식으로 낸다고 나와있어 가보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식사를 하고 있었다. 커다란 원탁에 10명 정도씩 앉아서 담소하며 식사를 하고 웨이터들은 커피를 부어주며, 한쪽에서는 재즈를 연주하는 흥겨운 분위기였다.

9시부터는 개회식이 있었다. 신임회장이 소개되고, 학회활동에 기여가 컸던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며 상을 준다. 후반에는 미국 에너지부의 부차관보인 Mark Ginsberg가 Vision2020이라는 내용의 조명기술 발전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아직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닌 듯이 보이나 가까운 장래에 확정 발표될 이 계획은 조명의 목적을 되새기며 조명기술 발전방향과 세부계획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깊은 작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감명적이었다. 이 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조명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시 15분에 개회식이 끝났고, 그 장소에서 논문 발표가 있는 것으로 장소를 잘못 아는 바람에 조금 늦어버렸다. 허겁지겁 발표 장소로 뛰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앞 순서의 발표가 시작되고 있었다. 발표자 소개를 마치고 내려오는 좌장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슬쩍 미소만 짓고 가버린다. 시작되고 있는 발표는 상점에서 조명이 고객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인데 많은 노력은 들었지만, 그다지 감명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았다. 발표를 마치고는

좌장의 진행으로 토론의견이 읽혀지고 발표자의 답변이 있었다. 영어를 저렇게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답변 후 청중의 질의는 없이 내 차례가 돌아왔다.

좌장의 소개를 한 귀로 들으며, OHP 자료를 꺼내 준비를 했다. 나와서 보니 빔 프로젝터도 있으나 컴퓨터는 없다. OHP는 매우 성능이 좋은 것으로서 준비해온 자료가 매우 잘 비쳐서 훌륭했다. 대개 준비한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상하게도 전혀 긴장이 전혀 되지 않고 매끄럽게 발표가 마쳐졌다.

그 다음 토론의견 발표인데 다른 토론자들은 불참하여 좌장이 대독하고 Frank Florentine 만이 참가해서 직접 의견을 읽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이미 우리에게 전달된 토론 말고도 새로 추가된 토론이 세 개나 더 있고, 좌장이 빠르게 읽어 내려간 내용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일단 준비한 내용으로 답변을 한 뒤, 나머지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로 발표가 끝났다.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매년 외국에 나올 때마다 느끼고 후회하지만, 귀국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니 어찌된 일일까... 어쨌든 부담스러운 일정은 모두 마쳤다.

좌장은 미소와 함께 악수를 하고 가버리고 Florentine은 남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가 만든 자료 중 하나를 부탁한다. 귀국 후 이 메일로 보내주기로 했다. 또 내일 아침 8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조명위원회가 열리니 참석해 달라고 한다. 발표를 마친 것은 12시로 이 시간대에 관심이 있는 분야의 발표가 집중되어 있었으나 듣지 못한 것이 아쉽다.

자료를 방에 갖다두고 활기찬 기분으로 김 박사와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 나는 닭고기를 넣은 포보이를, 김 박사는 새우튀김을 시켰다. 웨이트리스가 빠른 말투로 small이나 big이냐고 묻는 말에 김 박사는 양이 적으므로 small로 달라고 했다. 그러나 나온

식은 small shrimp를 튀겨서 산처럼 쌓아 놓은 것! 작은 접시가 아니라 작은 새우였던 것이다.

2시부터 5시까지는 다섯 개의 세미나와 아홉 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되는데 동시에 다섯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므로 듣고 싶은 것들이 겹쳐서 매우 결정하기 어려웠다. 논문발표는 나중에 Proceeding을 보면 되겠으나 세미나는 별도 자료가 없으므로 세미나 위주로 듣기로 했다. 한편 세시간에 걸쳐서 세 개의 논문이 발표되는 일정도 있으나, 실제로는 한시간씩 발표하는 경우는 없고 발표 내용에 따라서는 극히 짧은 시간에 끝나거나 토론 의견이 아예 없이 청중들의 질의 응답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발표들이 30~40분만에 끝나는 것 같다.

3시 30분부터 개시된 Energy Star Building에 관한 세미나에는 조금 일찍부터 가서 앉아있었더니 발표자들이 와서 내게 관심을 보이며 자꾸 묻는 바람에 답변하느라 혼이 났다.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되던 Energy Star 표시가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한다.

호텔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므로 부담이 없이 이곳 저곳 기웃거리며 첫날의 일정을 마쳤다. 다섯 시에 호텔 방에서 김 박사와 만나 잠시 쉬고 거리 구경을 나섰다.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한바탕 큰비가 내리고, 태양을 보기 힘들며, 습기가 많고, 냉방이 된 호텔을 나서면 안경에 김이 서려 걷기 힘들었다. 상가 구경을 하고 일식집에 가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곳 특산 요리를 먹고 싶었으나 밥을 그리워하는 김 박사에게 졌다.

〈1999년 8월 10일〉

아침식사는 좀 비싸지만 호텔에서 먹고 김 박사는 박물관 조명위원회에 갔다. 나에게도 같이 가자고 권하는데 어쩐지 게으른 마음이 들어 싫다고 했다.

9시부터 몇 개의 논문발표를 들었으나 기대수준에 미치는 정도의 내용은 참 드문 것 같다. 10시 30

분부터는 미국의 조명전문가 자격인증 제도인 NCQLP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참가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LD(Lighting Designer)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번 세미나의 내용은 자격 취득자들이 3년마다 달성해야 할 재교육 점수에 대한 것이었다. 즉 LD들은 IESNA, IALD 등에서 개설하는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여해서 3년마다 일정한 점수만큼을 취득해야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점수는 매년 조명관련 행사에 최소 한번씩은 참가해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절되어 있다.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준을 높이고 기술발전을 따라잡도록 하는 노력이 놀라웠다. NCQLP는 특정 학회나 기관 소속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단체이지만, 자격의 수준과 목표 등에 대한 결정에는 IALD가, 문제에는 IESNA가 많이 기여한 것 같다.

점심은 과도한 아침식사-비싼 돈을 낸 호텔 뷔페라서 양껏 먹었다-로 인해 전혀 생각이 없어 건너뛰었다. 오후에는 세미나도 하나가 취소되어 하나밖에 없고 논문 발표도 다섯 편 밖에 되지 않아 과장의 느낌이 든다. 혼합광 사용과 연색성 변화에 대한 논문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시간이나 토론을 했다. 대개 이론에 대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적용에 대해 흥미가 높고 토론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프렌치 쿼터의 제일 큰 거리에 나가서 구경을 했다. 골동품 가게들이 즐비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엄두를 낼 수가 없고, 재즈연주를 하는 줄 알고 들어간 카페는 미국식 노래방이어서 당혹스러웠다. 불을 잔뜩 켜놓은 가게들은 거의 장신구 가게이거나 기념품 가게이다. 뉴올리언스가 미국 내에서는 이름난 관광지인 탓이다. 호텔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성장한 흑인 여인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GMWA가 무엇의 약자일까 토론했다. WA가 Women's Association일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그 이상은 알 도리가 없다.

저녁은 역시 밥을 그리워하는 김 박사의 주장에

따라 중국 식당으로 갔으나, 패스트푸드 식으로 변형된 허름한 가게였다. 몇 가지 음식을 사들고 호텔로 돌아와 맥주와 함께 먹었다. 진짜로 양이 많다!

〈1999년 8월 11일〉

길 건너 매리웃 호텔의 아침 뷔페가 싸다는 광고를 보고 그곳에 가서 식사를 했다. 오늘은 Conference의 마지막 날이지만 발표 내용이 거의 볼 것이 없고, 내일 새벽에는 귀국 길에 올라야 하므로, 오전 관광프로그램을 신청했었다. 관광 버스를 기다리며 보니 GMWA는 Gospel Music Workshop in America의 약자였다. 버스를 타러 나갔더니 대부분 관광 참가자들이 부인들 또는 노인들이다. 1940년대에 지어진 호화 주택을 구경했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수목, 그리고 40년대에 건물 전체에 설치된 냉난방을 겸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시설 등이 놀라웠다.

12시에 호텔로 돌아와 테이블 전시회를 참관했다. 입구에서 샌드위치를 무료로 나누어 주는데 생각이 없어 거절했더니 매우 놀라는 표정들이다. 전시회는 한 회사에 한 개의 작은 테이블만을 전시공간으로 주어 전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화려한 맛은 없으나 참가자들이 모두 조명의 전문가들인 만큼 수준과 열의는 매우 높았다.

오후에는 박물관엘 가겠다는 김 박사와 헤어져서 미시시피 강을 유람하는 증기선을 탔다. 강의 폭은 그다지 넓지 않으나 깊이가 깊은 듯, 아주 많은 종류의 배들이 떠다닌다. 그러나 그다지 볼 것은 없고 두 시간의 유람은 지루했다. 증기선 화장실의 찬물도 따뜻하다. 데워줄 이유는 없는데... 날씨 탓으로 진짜로 찬물이란 없고 수돗물 온도가 높은 탓이란 걸 깨달았다.

유람선을 내려서 쇼핑을 했다. 한 가게에서 수염을 일정한 길이를 유지해서 깎아주는 수 많은 기계들 중 하나를 샀다. 가장 보람있는 쇼핑이다. 오랜만에 수염을 가지런히 깎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 김 박사는 루이지애나 주립박물관과 조폐창 건물을 보

고 왔다. 조폐창 건물 역시 박물관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저녁은 일식집에서 먹었다.

〈1999년 8월 12일~13일〉

새벽 네시 반에 호텔을 체크 아웃, 공항에 도착했다. 아무도 없는 항공사 카운터 앞에 여자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 슬쩍 들여다보니 한글 소설책. 배낭여행중인 대학생이라 한다. 이곳에 와서 한국 식당 주인을 제외하고 처음 본 한국사람이다.

뉴올리언스에서 시카고로 가서 대한항공을 탔다. 이번에는 승객이 매우 많다. 이 비행기 여행은 매우 지루하고, 지쳐서 둘 다 말이 없이 영화감상을 하거나 잠을 자면서 왔다.

서울 도착은 13일 오후 4시 반, 짐을 찾아 춘천에 도착한 것은 9시로서 출발한지 스물 여덟 시간 만이다. 정말 지치는 여행이었다.

〈1999년 8월 14일〉

학교에 출근해보니 우편물은 별로 없으나 60개의 이메일이 와있다. 그중 세 개는 Carleton이 보낸 세 사람의 토론의견으로 내가 미국으로 향하기 위해 서울로 떠난 6일 저녁에 도착했다.

이 논문이 Journal에 실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김 박사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단언하지만, 나는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다. Journal of IES는 3,000여 논문지가 제시된 SCI 목록에는 없고 5,700개의 SCI 확장 목록에 제시되어 있다. Conference에 발표되는 논문의 수준은 생각보다 높은 것 같지 않고, 다만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 나라의 논문들도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 공부는 좀 해야겠고... 이외에도 CIE나 LUX EUROPA, LUX PACIFICA 등 발표할 기회는 많이 있다.

2000년 대회는 워싱턴 DC, 2001년 대회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다. 미국의 학술대회도 참가자들이 모처럼 여행하는 기회라는 것을 감안해서인지 관

광이 가능한 소도시들에서 열리는 것 같다. 내년에 또 참가하게 될 것인가? 발표할 정도의 연구가 진행될 것인지, 연구 결과가 있다하더라도 참가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著 者 紹 介◇



김 훈(金煥)

1958년 8월 6일생. 1981년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 1983년 서울대 대학원 전기공학과(석사). 1988년 서울대 대학원 전기공학과(박사). 1993년 호주국립대학 방문교수. 현재 강원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당학회 편수이사.



김 홍 범(金弘範)

1954년 5월 25일생. 1978년 서울대 공대 공업교육과 전기전공 졸. 1994년 고려대 산업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석사). 1998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박사). 현재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 설비과장.